

‘힘센 삼촌’·‘레슬러父子’가 보여주는 가족애

썸영화 VS 영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영화 두 편이 관객의 발걸음을 기다린다. 바로 ‘챔피언’과 ‘레슬러’다. 가족애를 주제로 하고 있으며, 스포츠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 ‘챔피언’ 한 남자의 진심과 가족의 탄생

먼저, 소개할 작품은 1일 개봉한 ‘챔피언’이다. 마동석이 오랫동안 기획하고 김용완 감독과 함께 완성한 영화 ‘챔피언’은 타고난 팔씨름 선수 마크(마동석)가 미국에서 알게 된 진기(권율)의 설득으로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으로 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마크를 챔피언으로 만들어 인생 역전하려는 진기와 마크의 이복 여동생이라고 등장한 수진(한예리)까지, 세 사람의 이야기가 관객에게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물한다.

‘챔피언’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팔씨름을 소재로 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팔씨름액션이라는 거창함보다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음으로써 위로받고, 위로해줄 수 있는 영화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의도를 밝힌 바 있다.

아마추어 대회에도 여러번 참가했을 정도로 평소 팔씨름에 관심이 많은 마동석이 팔씨름 선수 마크로 분했다. 마동석은 완벽한 연기를 위해 실제 선수들과



챔피언

팔씨름이라는 색다른 소재로 다가와 마동석, 터프함·러블리한 매력 발산

기술을 공유하고 고강도 훈련을 진행하는 등 열정을 불태웠다. 시합 장면에서는 터프한 매력을, 하지만 자신의 조카들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러블리한 매력을 동시에 발산한다.



레슬러

유해진·김민재 부자간 호흡 기대 우리네 가족 모습 실감나게 그려

마크의 에이전트를 자처하며 챔피언 만들기 애정 어린 진기 역은 권율이 맡았다. 전작에서 젠틀하고 반듯하거나, 냉정하고 차가운 역할을 즐겼던 권율은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을 대중 앞에 공개한다. 말 많은 허풍쟁이에 때로는 알뜰까지 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를 연기한 권율은 폭넓은 감정을 소화한다.

한예리는 이번 작품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수진으로 분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

챔피언이 되기 위한 한 남자의 진심과 서로의 존재조차 몰랐던 이들이 가족이 되어가는 진솔한 과정이 담긴 영화 ‘챔피언’은 5월 1일 개봉한다.

◆ ‘레슬러’ 한 남자의 성장과 부모-자식간의 소통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레슬러’는 오는 9일 개봉한다.

‘레슬러’는 전직 레슬러에서 프로 샐러리맨으로 변신한지 20년, 살림 9단 아들 바보 귀보(유해진)씨와 아들 성웅(김민재)를 비롯해 그들을 둘러싼 캐릭터들이 빚어내는 유쾌한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이다.

아들만 바라보는 귀보와 통명스럽게 반항하기도 하지만 아빠 귀보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겠다는 목표를 가진 유망주 레슬러 성웅, 자식 걱정에만 토크만 나면 잔소리를 쏟아내는 귀보의 엄마(나문희)의 시골벽적인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우리네 가족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내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훈훈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 아들을 위한

희생이 전부가 된 아빠와 아빠의 기대감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는 아들, 두 사람이 부딪히며 성장해가는 과정은 부모-자식간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

게다가 귀보를 따라다니며 고백하기에 바쁜 성웅의 소꿉친구 가영(이성경)과 귀보에게 첫눈에 반해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소개팅녀 도나(황우슬혜)까지 독특한 개성을 지닌 캐릭터들과 뒤얽히는 귀보의 이야기는 코믹한 웃음을 안긴다. 아들과 아들의 소꿉친구와의 아이러니한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귀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로서가 아닌 오롯이 자신의 꿈을 품었던 한 남자 귀보로 성장한다. 스스로의 인생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찾아나서는 과정은 관객에게 기분 좋은 카타르시스를 전한다.

2016년 ‘럭키’, 지난해 ‘공조’와 ‘택시 운전사’까지 흥행몰이를 한 유해진이 살림 9단 귀보로 변신한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을 유쾌한 연기로 표현한 것은 물론, 개성 강한 배우들과 찰진 연기 호흡으로 풍성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귀보의 아들 성웅은 김민재가 연기한다. 촉망받는 레슬링 선수 캐릭터를 위해 체격을 키우고 태닝을 하는 등 외적인 변신을 꾀한 김민재는 작품을 위해 실제 레슬링 기술을 한달 반 동안 매일 3시간씩 연습하고 모든 경기 장면을 직접 소화했다. 유해진과 김민재의 부자 호흡이 기대감을 높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시와 사진이 있는 아침

얼레지

활활활 철철철
음악 분수처럼 쏟아지는 봄빛... /고홍근 작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850만 돌파... 압도적 기록

역대 흥행영화 역사 모두 새로 경신

마블 스튜디오 10주년의 클라이맥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2주 연속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다. 누적 관객수 850만 명에 가깝게 모여 역대 외화 개봉 2주차 최다 누적 관객수 동원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개봉 2주차 박스오피스에서 누적 관객수 849만8319명을 동원하며 2주 연속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뿐 아니라, 역대 외화 개봉 2주차 누적 관객수 최다 관객 기록까지 다시 한번 경신했다. 종전 최고 기록은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015)의 개봉 2주차 누적 관객수 701만1605명이다. 더불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시를 모두 새로 써내려 가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역대 최다 예매량(122만 장) 및 역대 최고 예매율(97.4%), 역대 최고 오프닝(98만 명), 역대 IMAX 및 4DX 최고 오프닝, 역대 문화가 있는 날 최고 흥행 기록, 2018년 최고 오프닝 기록 및 역대 최단 기간으로는

개봉 2일째 100만, 개봉 3일째 200만, 개봉 4일째 300만, 개봉 5일째 400만, 개봉 6일째 500만, 역대 외화 최단 기간 개봉 8일째 600만, 개봉 11일째 700만, 개봉 12일째 800만 관객 돌파 기록까지 모두 새로 경신했다. 이와 함께 역대 일일 최다 관객수, 역대 외화 개봉주 및 개봉 2주차 최다 관객수 동원 기록까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대한민국 영화 흥행 역사를 모두 새로 쓰고 있다.

게다가 3주 연속 CGV골드에그지수 96%를 지속 유지하며 꾸준한 입소문 물이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레슬러’ ‘데드풀 2’ ‘챔피언’ 등을 제치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개봉 3주차에도 흥행 릴레이를 이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8일

음력: 3월 23일

수도권 날씨

23~1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30 | 해질 / 19:28

연천 11/21, 동두천 12/23, 가평 11/20, 파주 11/23, 서울 14/23, 양평 12/23, 인천 14/21, 수원 13/22, 용인 13/22, 평택 13/23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이 남자프로 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에서 5주 만에 1단계 상승해 21위에 이름을 올렸다.
- ▲ 밀워키 브루어스 산하 트리플A 팀인 콜로라도 스프링스 스카이삭스 소속 최지만이 오클라호마시티 다저스(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산하)와 방문 경기에서 시즌 2호 홈런을 포함해 3안타 맹타를 휘둘렀다.
- ▲ ‘장거리 최강자’ 김도연(K-water)이 전국종별육상경기전 수권 여자 1만m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 ▲ 한국 여자농구 국가대표 센터 박지수(라스베이거스 에이시스)가 2018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시범경기 데뷔전인 중국 대표팀과 경기에서 8득점에 4리바운드(2블록·1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98-63 대승에 힘을 보탤다.
- ▲ 한국 근대5종 대표팀이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에서 남녀부 동반 메달을 수확했다. 김선우는 한국 여자 근대5종 선수 중 처음으로 UIPM 월드컵 메달을 획득했고, 남자부의 전용태는 리우데자네이루 대회를 포함해 개인 통산 3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 ▲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2부리그 SV 다름슈타트 98에서 뛰는 지동원이 2017-18 2부리그 33라운드 원정에서 SSV 안 레겐스부르크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작성하면서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